

독주가 아닌이상 악기는 음악과 함께 연주하는 것이 재미있다.

기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양 팔로 기타를 껴안은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음악을 재생하고 멈추고 다른 파트로 이동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. (몇번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기타에 휴대폰을 붙여버릴까 하는 충동도 든다)

그러니 손가락만 까딱이는 것으로 외부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 같다

전기기타라면 반드시 달려있는 픽업(그림 1 의 적색 동그라미 부분)



이 픽업은 전기가 흐르는 기타줄이 진동하며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감지하여

소리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한다.

때문에 픽업은 곧 전기기타의 생명이자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바꾸어보기 위해 픽업만 따로 구입하기도 한다.

이러한 픽업의 기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픽업에 초소형 자기장 생성기(BA 드라이버 같은것)를 달아놓는 것은 어떨까?

그리고 이 자기장 생성기가 내장된 픽업은 10 초앞으로 10 초뒤로 재생, 정지 버튼만 달려있는 작은 패널(아래 그림의 조작부)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니까. (조작부는 기타 아무곳이든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.)

마지막으로 이 조작부는 외부 재생기기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재생되는 음악 신호를 픽업에 부착된 자기장생성기에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.

그러면 자기장생성기는 받은 신호를 자기장으로 변환하고 픽업은 이를 전기적으로 증폭하여 앰프에 보내줄 것이다



이렇게 함으로서 연주자는 기타를 양팔에 껴안은 채 음악 플레이어를 따로 만지작거릴 필요 없이 플레이어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작부 조작만으로(즉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으로) 음악재생과 함께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.

좋지 아니한가.